

소방청 구조헬기·해군 잠수요원 투입 막아 인명피해 키워

해양 경찰의 무능함이 무서운 정도다.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수색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구제불능(救濟不能) 해경'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서다. 해상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했지만 정작 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 활동을 총괄·조정하면서 지휘·통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해상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성은 커녕,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뉴얼조차 무시하는가 하면, 숨기기에 급급했다. 특히 '해상종합훈련'을 한다며 호들갑을 떨기 불과 한 달 여만에 어처구니없고,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행동을 저질러 "무능한 해양경찰을 믿고 따라야 하나"라는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무지해서 무섭다"=해양경찰이 만든 '주변해역 대형 해상 사고 대응매뉴얼'에 따르면 해경은 국내 해역에서 대형 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 구조 총괄 지휘·조정·통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아 구조현장 현장 출동 및 유관 기관 등에 신속한 구조 지원을 요청하는 조동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소방방재청은 해경의 구조 요청만 기다리다 헬기 투입 시기를 놓쳐 더 많은 승객을 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의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도 강고리 무시됐다. 해상사고 발생 때 출동 대원과 현장 지휘관이 어떻게 구조활동을 벌여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매뉴얼은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선박의 설계도면을 입수하여 현장 대응 세력에게 전달하고 도면을 없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현장에 급파'도록 명시했지만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이를 무시했다. 해경은 오히려 이준석 선장을 뒤늦게 지휘함으로써 데리고 가 잠수사에게 선내 구조를 설명,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

또 사고선박에 접근하면서 사고원인, 기상상태, 해상상태, 항행선박의 상태 등을 조사하며, 전복선

컨트롤 타워... 전문성 없고 매뉴얼 무시

선체 진입 생각도 안해 구명 기회 날려

어처구니 없는 수색·구조 전국민 분노

박 주위에 부유물이 있는지를 조사 및 확인' 토록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승객 또는 선원의 퇴선 여부 파악, 구명조끼 착용 여부,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 매뉴얼대로 퇴선 여부를 조사해 300여 명의 승객이 남아 있는지를 알았다면 대응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반응도 많다.

결국 '골든 타임'에 경비정 1척, 고무보트 1대, 헬기 2대만이 구조에 나서서 안일함으로 피해를 줄이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만하다. '사고 현장에 곧바로 잠수부를 투입해야 한다'는 매뉴얼도 무시했고 사고 첫날 해군 특수부대 요원의 잠수를 제지했다.

여수해경도 지난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 시 대응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빈축을 산 바 있다.

◇"무능해서 무섭다"=해양경찰은 한 달 전인 지난 3월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경 주도로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완벽한 해상임무 수행과 국민관심 해양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취지로 경비함정 11척, 251명이 참가했다.

'불시의 해상사고에 대비 수색·인명구조 및 생존술 훈련 강화 등 실제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부여하여 최적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구축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한 달 뒤 세월호 침몰 사고에는 어처구니없는 대응력을 보여준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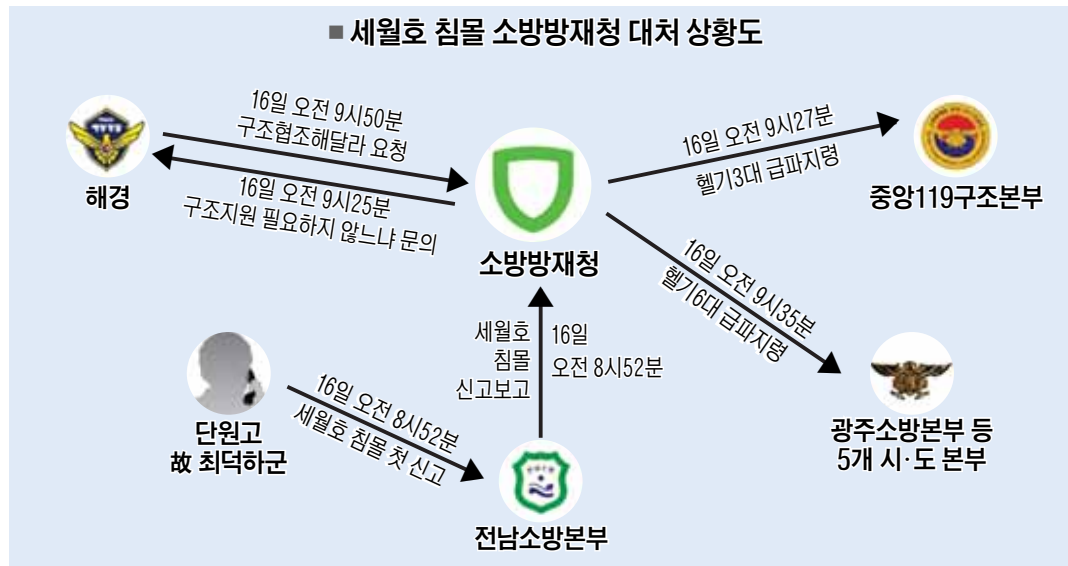
세월호 침몰 사고의 미흡한 대응을 의식해서인지 해경은 보도자료까지 냈던 당시 훈련의 시나리오조차 공개하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한 형편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애들아 정부 용서하지마"

1일 오후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이 진도군 팽목항에서 정부의 무능한 사고 수습을 비난하는 손팻말을 들고 선 채 오열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이들 죽어갈때... 소방방재청은 해경 지시만 기다렸다

30분 이상 대기 능력지령·능장출동

소방방재청이 세월호 참사 당일 해양사고 컨트롤 타워인 해양경찰의 지시를 기다리다 일선 소방본부에 능력지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소방방재청은 '광주일보 5월 1일자, 소방방재청, 첫 보고 목살 40분 날렸다'는 보도와 관련, 해명 자료를 내고 지난달 16일 오전 8시52분 전남소방본부를 통해 첫 사고신고를 받은 후 오전 9시 전남소방헬기(1호기) 출동 지시→오전 9시27분 중앙119구조본부 헬기 3대 급파→오전 9시35분 사고현장 인근 5개 시·도 소방헬기 6대 출동 지시 등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9개 시·도 헬기를 출동토록 했으며 이날 총 15대 헬기에 80명(119구조 요원 30명)의 인력이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전남소방헬기(1호기)는 기상사정 등으로 평소보다 20~30분 늦은 오전 10시10분 사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해경에서 관매도에 대기하라고 지시해 (현장)진입을 하지 못했으며, 이후 도착한 소방헬기도 팽목항 등에 대기했다고 해명했다.

소방방재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컨트롤 타워인 해경의 지원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사고 당일 오전 9시25분까지 해경의 지시가 없어 구조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문의했더니, 기다리라고 했다"면서 "이후 상황이 긴박해 자체적으로 헬기 투입 지령을 내렸으며, 오전 9시50분쯤 해경에서 협조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소방방재청의 해명을 요약해 보면 16일 오전 8시52분 전남소방본부의 사고보고를 받고 헬기 1대만 출동토록 지시한 뒤 30여분 동안 해경의 협조요청을 기다렸고, 같은 시각 전남소방본부는 40여분간 인근 소방본부 등에 지원 요청도 하지않고, 대기중이었다는 것이다. 긴급한 구조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고질적인 지시 관행에 사로잡혀 책임 있는 '윗선'의 지시만 기다리다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소방방재청이 이날 밝힌 전남소방본부의 첫 구조헬기 현장도착 시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목포에서 출발한 해경 소속 헬기는 16일 오전 9시 30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였는데도, 바로 옆 영암에서 출발한 소방본부의 구조헬기는 이보다 40분 늦은 오전 10시10분에야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최소 해경 헬기와 비슷한 시각에만 현장에 도착했다더라도 헬기에 탄 구조요원 30명이 구조활동을 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박진표기자 lucky@

해경, 세모그룹 근무 경력 정보수사국장 전보조치

해양경찰청은 세모그룹 근무 경력으로 논란이 된 이용욱 정보수사국장을 경질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 국장을 보정 국제협력관으로 보직 이동시키고 김두서 국제협력관을 신임 정보수사국장장에 임명했다.

이 국장은 1991~1997년 세월호 선사 정해진해운의 모체 격인 세모그룹의 조선사업부에서 근무했다.

일각에서는 이 국장이 세모그룹 근무 경력 때문에 세월호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국장은 "한때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미 10여 년 전 모든 연락을 끊었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주관하는 세월호 수사에서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종형기자 golee@

http://naju.booyoung.co.kr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광주전남혁신도시 부영아파트가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미소로
고객의 아름다운 삶 속에
행복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광주전남혁신도시 B5 블럭

「사랑으로」부영 아파트 일반분양!

- 교통 - 49번 국도, 호남고속도로, KTX나주역,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등 광역교통망
- 자연 - 중앙호수공원, 골프 빌리지, 영산강 수변공원 등이 위치한 높은 주거가치
- 교육 - 전남과학고, 전남외국고, 혁신도시내 초·중·고 예정 등 우수한 교육환경
- 가치 - 12개 공공기관 이전예정, 산학연 클러스터 등 자립형 신도시로 특급미래가치

84㎡ 총 946세대 **모델하우스 062)368-8323~4**

광주광역시 사구 죽림대로 20

모델하우스 개관중!